

주일 헌금과 교무금

하느님께 바치는 우리의 정성



우리는 교회에 헌금과 교무금을 봉헌함으로써 하느님께 우리의 정성을 바칩니다. 이러한 헌금과 교무금으로 교회가 유지됩니다. 교구와 본당의 다양한 사목 활동, 단체 보조, 그리고 본당 시설 확충과 유지 및 보수, 그리고 본당 사목자 생활비와 직원 인건비 등 교회 활동 전반에 사용됩니다. 사실 우리가 봉헌하는 헌금과 교무금은 우리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신자들은 주교회의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165조)

주일 헌금은 우리가 미사 중에 성찬 전례의 시작인 예물 준비 때에 바치는 봉헌금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신자들이 성찬 전례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물건들을 바치던 것이 그 시작입니다. 주일 헌금은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자기희생의 상징으로서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금입니다.

교무금은(개신교는 교무금 대신에 십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신자들이 저마다 스스로 정한 대로 내어놓는 헌금입니다. 교무금은 주일 헌금과는 달리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을 단위로 그 액수가 책정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매달 나뉘어서 봉헌하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교무금을 얼마큼 내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입의 30분의 1을(한 달 수입 중에서 하루만큼을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는 뜻) 봉헌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교무금의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정성껏 하느님께 봉헌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신자들이 내는 교무금은 모두 세금 감면 대상입니다. 교무금뿐만 아니라 감사 헌금, 자모회비, 사회복지회비 등 본당에 개인 이름으로 낸 기부금은 모두 그 대상입니다. 본당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본당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 정산을 할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금과 교무금을 정성껏 바침으로써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이름으로 이웃에게 자선을 베풁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루카 21,3-4)

고준석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



[지혜문학] 노인에게 지혜를 배우는 가정

오늘은 어르신에게 지혜를 배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문학은 노인들이 지혜와 슬기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경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들은 오랜 시간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인생의 깨달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인은 인생의 선배이자 스승이 됩니다.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반영되고 존중되는 가족, 사회, 국가는 그만큼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서울대교구 온라인 성경채널'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성경채널 사이트: online.catholic.or.kr